

“미국의 변질은 우리 죄입니다. 돌이키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노니 미국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소서”

2024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22일 오후 4시에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환영사에서 한기홍 목사는 “하나님께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지고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와 경제를 이끌도록 미국을 축복하셨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고, 구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군대를 파송하고 희생하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셨다”면서 “그런데 현재 미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모아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



2024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22일 오후 4시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 기독일보

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11월에 미국에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미국이 다시 회복

되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겠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오늘 모였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기도응답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날 네 개의 기도 그룹이 2시간여 동안 기도회를 이끌고 회개, 부흥과 회복, 선거와 리더십, 선교와 평화를 위해서 합심해 기도했다. 특히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 등 20여 명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목회자들이 기도회를 이끌었다. 모든 순서는 조지 푸엔티스 목사(Iglesia de Cristo Eilm)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주류 교회들, 기독교 신념 포기 ‘무지개 깃발’에 뒤덮여”

캐나다의 문화평론가인 조던 피터슨(Jordan Peterson·62) 박사가 최근 기독교계에 ‘우오크’(woke) 이념이 침투하는 것을 비판하며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문화적 추세를 선호하며, 핵심 가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슨 박사는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CP)와 인터뷰를 갖고, “많은 개신교회 밖에 무지개 깃발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교회가 ‘쾌락주의적 자존심’(hedonistic pride)을 선호하며 기독교의 기본적 신념을 심각하게 포기한 것

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피터슨은 “우오크 무지개 폭도’(woke rainbow mob)가 개신교회를 점거한 것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 캐나다와 영국에서 주류 개신교회 대부분은 무지개 깃발로 뒤덮여 있다. 기독교인들이 쾌락주의적 자존심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끔찍하게 잘못됐다”며 “교회가 정체성 정치를 수용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에서 벗어난 위험한 변화이며, 특히 문화적 추세에 더 취약한 젊은 세대의 신앙의 신실성에 위협을 끼친다”고 했다. 강해진 기자 → 2면에서 계속

“로잔 서울선언문, 차별금지법 강력 반대 표명해야”

복음법률가회·진평연·성수협 성명서 발표

2024 제4차 로잔대회에서 발표될 ‘서울 선언문’과 관련, 복음법률가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명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복음법률가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로잔에서 서울 대회를 종료하기 전에 로잔 서울선언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경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로잔 서울선언문이 갖는 불공정한 편향적

침묵을 강력히 비판할 것이고,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로잔 서울선언문이 교회가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만을 회개의 대상으로 삼고,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하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심각하게 차별하여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한 것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

정 반대 운동에 주력해온 복음법률가회로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로잔 서울선언문이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뿐이고 이것이 변경되거나 그 외의 성별이 있다는 젠더 개념은 비성경적이며, 결혼은 남녀 간에만 정당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이 비성경적 죄악임을 명확히 하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인 교인들도 목회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점들을 진술한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대웅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영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NEW COVENANT ACADEMY

CELEBRATING 25 YEARS

AN IB WORLD SCHOOL

- RIGOROUS ACADEMIC PROGRAM
- EFFECTIVE AND CARING TEACHERS
- SAFE AND NURTURING CAMPUS
- AFFORDABLE TUITION
- SOLID CHRISTIAN EDUCATION
- 100% UC ACCEPTANCE
- 10:1 STUDENT-TO-TEACHER RATIO
- WASC ACCREDITED
- SENIOR SAT AVERAGE: 1370

ENROLLING NOW! K-12

Voted #6 Best Christian High School in CA

FOR MORE INFO
 SCAN ME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 487-5437
 NCAHUSKIES.ORG

WASC ACCREDITING COMMISSION FOR SCHOOLS
 ACSIS STRONGER TOGETHER
 IB WORLD SCHOOL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중열 신임 이사장 선임

2024 밀알의밤 10월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ANC 온누리(4일)와 감사한인(5일), 엘바인 온누리(6일)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중희 목사)에서는 지난 9월 19일(목)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을 선임하는 등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남가주밀알의 신임 이사장에는 이중열 장로(James Worldwide 대표)가 선임되었고, 부이사장은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 담임목사, OC 교협회장)가 계속 연임하기로 했다.

이중열 신임 이사장은 그동안 남가주밀알 이사, 밀알의밤 장학위원장으로 열심히 섬기며 수많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 장학금을 수여하는 데 공로가 크다. 심상은 부이사장 역시 사랑의

캠프 등 밀알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물심양면으로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한편,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주관하는 '2024 밀알의밤'이 10월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싱어송라이터 '하림'을 메인게스트로 초청하여 ANC 온누리교회(4일 오후 7:30)와 감사한인교회(5일 오후 6:00), 엘바인 온누리교회(6일 오후 6:00)에서 개최한다.

이번 밀알의밤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하림의 아름답고 진솔한 삶의 나눔을 통해 우리 한인교포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앞줄 왼쪽부터 이중희 단장, 이중열 이사장, 이준수 목사, 심상은 부이사장 @남가주밀알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2025년도 밀알장애



제16회 선교와 이웃 돕기 사랑의 찬양제

남가주 한인 장로 협의회(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회장 서경원 장로) 주최로 제16회 선교와 이웃 돕기 사랑의 찬양제가 9월 29일(주일) 오후 5시 30분에 나성 한미교회(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에서 개최된다.

사랑의 찬양제에는 남가주 장로 성가단(지휘 장진영), LA 목사 중창단(지휘 서문옥), 보블리스 합창단(지휘 김철이), 무궁화 여성 합창단(지휘 지경), 실비치 사랑의교회(지휘 송정현), 아리랑 여성 합창단(지휘 김정민), 나성 한미교회 중창단(지휘 이준실), 외대 코랄(지휘 오위영), 레위 성가단(지휘 강정엽), 미주 여성코랄(지휘 오성애)가 출연한다.

한인 장로회 총연합회, 남가주 장로 성가단, 남가주 한인 음악가 협회, 남가주 교회 협의회, 서울 메디칼 그룹, 한미 메디칼 그룹, 미주 복음방송, 한국일보, 중앙일보에서 후원한다. 주디 한 기자

일시: 9월 29일 주일 오후 5:30
장소: 나성 한미교회 (626-444-0058, 2727,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문의: 714-553-9234(서경원 회장), 909-319-2158(오성애 권사)

살롬 센터 이지락 소장 이웃주택서비스 '영웅상' 수상

커뮤니티 주택봉사 비영리단체인 살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이 지난 13일 LA 파라마운트 픽처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LA카운티 이웃주택서비스(NHS LA County) 창립 40주년 행사에서 '숨은 영웅상'(Unsung Hero)을 수상했다. NHS는 이날 살롬센터 이지락 소장을 포함해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한 3개 단체 대표에게 상을 전달했다. 숨은 영웅상을 수상한 것은 한인으로서 이 씨가 최초이다.

살롬 센터와 NHSLA는 강제된 거 방지 및 산불로 소실된 주택 수리 기금 제공 등의 프로젝트에서 오랫동안 협력해 왔다.

주디 한 기자



이지락 소장(살롬 센터)가 LA타운티 이웃주택서비스의 숨은 영웅상을 수상했다.

→ 1면 기사 ("주류 교회들...")에 이어서

그는 또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조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종교적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신병적 자기애주의자들이 그것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예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에 의해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는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종교를 사용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이다. 그것은 종교적 사업에서의 실제적 위협이며, 특히 복음적인 형태의 기독교는 더욱 이기적인 사기꾼들에게 압도당하기 쉽다. 그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에 진정으로 헌신하는지 아니면 신앙을 단지 자

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지 판단할 때 성경 구절이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피터슨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의 작품에서 기독교적 주제, 가치관, 성경 이야기를 자주 논의하며, 특히 서양 문명의 맥락에서 기독교의 문화적·도덕적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현대 생활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는 데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피터슨에 따르면, 성경적 사상은 어린이들이 포르노에서부터 화면 과다 노출로 인한 사회적 고립에 이르기까지 현대 기술의 유혹과 위협성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윤리적 틀을 제공한다.

→ 1면 기사 ("로잔 서울선언문...")에 이어서

그러나 성별과 동성에 관련 이진술문들은 제3차 국제로잔 케이프타운 대회(Advance Paper, 준비완료)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재확인한 것이고, 이는 국제로잔의 창설을 주도한 존 스토틀리가 이 문제들에 관하여 자신의 저서들에 발표한 입장과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새롭게 추가된 성과라고 하기 어렵다.

젠더와 동성에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안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이다. 차별금지법은 국제로잔이 비성경적 죄라고 진술하는 젠더와 동성애를 법률로 정당화한다. 나아가 젠더와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혐오표현을 하는 차별법으로 몰아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반성경적인 젠더와 동성애 수용을 사실상 강요한다.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려는 사회운동이 성혁명 운동이다.

서구 기독교 선진국들의 교회들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혁명 운동 확산을 저지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제정된 차별금지법의 영향과 성경의 절대적 신적 권위를 믿지 않는 신학에 미혹되어 서구 선진국 기독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며 젠더, 동성애, 동성혼을 적극 환영하는 심각한 배도로까지 나아갔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다는 국제로잔은 창립 이후 50년 이상이 지나도록 젠더와 동성애가 비성경적인 죄이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입장만을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서 견지해 왔다. 반면, 그 기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젠더와 동성애를 반대해온 성경 믿는 성도들을 극심하게 차별해온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그로 인한 신앙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교회의 오염과 파괴 문제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의아할 정도의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

현재 공표된 로잔 서울선언문은 젠더, 동성애, 동성혼이 비성경적인 죄라고 하면서도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고 목회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들을 그대로 반복하였을 뿐, 한국교회가 기대하고 요구했던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자유 침해성의 폐해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로잔 서울선언문이 한국교회의 정당한 요구인 차별금지법 반대 동참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복음법률가회는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2025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다음과 같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수여대상

-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 0명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 제출서류

-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 (www.milalsc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102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136,200의 밀알장학복지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된 누적 총 금액은 \$3,012,400입니다.

1.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 (소속기관) 증명서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사랑의교실 주임교사) 또는 소속기관 담당 교사)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장학금액

- 밀알장학생 & 근로복지생: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 신청마감

2024년 12월 6일(금)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 발표

2024년 12월 31일(화) 개별통보함

■ 수여식

2025년 1월 20일(월)



“이정근 목사님, 천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유니온교회 원로 목사 제9대 미주성결교회 총회장과 이정근 목사 장례예배 9월 22일 산샘교회서 거행

제 9대 기독교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고 이정근 목사의 장례예배가 지난 9월 21일(토) 오전 11시 30분에 산샘교회(윤석형 목사)에서 거행됐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자리에는, 고인이 남긴 복음의 발자취를 기리는 남가주 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 조문객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김종호 목사(미주성결교회 노회장)의 집례로 거행된 예배에서 백문철 장로(미주성결교회 전 장로부총회장)가 고인의 삶을 떠올리며 기도했다.

백문철 장로는 “44년 전에 유니온 교회를 창립하시고, ‘꼭 예수님처럼’을 부르짖으며 목회에 전념하신 이정근 목사님의 귀중한 생명이 떠났기에 애태우며 슬픈 마음으로 목사님의 천국 환송예배를 드립니다. 이정근 원로 목사님의 생명이 이미 부름을 받아 아버지 품에 안기고 여기에는 그의 몸만이 남아 있습니다. 슬퍼하는 유족과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에 머리를 숙이오니 주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죽음 앞에서 인간의 생명이 한낱 티끌임을 느끼면서 영원하신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주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서 조승수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가 “끊을 수 없는 사랑”(롬 8:35-3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난 1월에 총회 위원들과 함께 이정근 목사님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정말 맑고 순수했던 기억이 있다”며 “아브라함 링컨이 국방부 장관을 선임할 때 자신을 무시했던 스탠턴이라는 인물을 임명했다. 링컨은, 그가 전쟁을 슬기롭게 이끌 수



제9대 기독교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고 이정근 목사의 장례예배가 지난 9월 21일 (토) 오전 11시 30분에 산샘교회(윤석형 목사)에서 거행됐다. ©기독일보



고 이정근 목사. ©유니온교회

있는 귀중한 분이라 생각해 국방부 장관으로 선임했다. 링컨의 장례식에서 스탠턴은 이런 말을 했다. ‘나무와 사람은 누워볼 때 얼마나 큰 분인 줄 안다.’ 우리는 고인이 얼마나 크셨던 분이 보고 있다. 굵직한 신앙의 족적을 많이 남기셨다. 저와 후배 목회자들에게는 언제나 귀감이 되셨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 자녀들 사이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정근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리에 있지만 이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가진다.”

설교에 이어, 윤석형 목사(전 총회장, 산샘교회 담임), 이상훈 목사(미성대 총장), Roy Lee 목사(이정근 목사 아들)의 추모사와 호산나 찬양대(유니온 교회), 이정근 목사의 후손들의 조가가 있었다.

윤석형 목사는 “고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마쳤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치료를 거부하시던 아버지... 아버지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삶”

간절하게 유니온 교회를 염려하였고 그토록 사랑하셨다. 지난 9월 1일 오후에 목사님이 하나님 옆으로 가셨다는 소식이 카톡을 통해 들려졌다.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상훈 목사는 “목사님을 떠올릴 때마다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기억이 하나 있다. 오랜 전 미성대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 마지막 질문 시간에 이정근 목사님께서 손을 드시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다. ‘학위를 마친 신진 학자인 저에게 목사님께서 너무도 겸손한 자세로 다가오셨다. 너무 따뜻하고 존경스러웠다’고 말했다.

아들인 Roy Lee 목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바랐지만 아버지는 교회를 섬기셨으며, 학자의 길을 걷길 원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다며,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였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 받기를 거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을 마쳤으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고,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 주장에 따라 암 치료를 받기로 동의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는 병원에서 쉬 수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아들인 그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수차례 이야기 했으며, 6월부터 집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시작했고, 그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었다. 자기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리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 역시 땅에 떨어져 죽은 씨가 되어 많은 생명을 맺게 되었다.”

이유근 장로가 가족 대표로 “살아 계실 때 ‘죽음은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다’ 라고 하셨다. 그 말씀대

로 이정근 목사님,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 놓은 채 천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라고 인사했으며 김시온 목사(교단 총무)가 광고한 후 찬송과 풀 김 목사(안디옥 침례교회 원로)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지난 9월 1일 오후 2시 하나님 품에 안긴 이정근 목사는, 1942년 경기도 화성시 남양에서 아버지 이흥룡 씨와 어머니 윤옥례 씨 슬하에 6남 2녀 중 5남으로 출생했으며, 1970년 박부강 씨와 결혼,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1956년 남양감리교회에 입교했고, 대학생 시절에는 경동교회에 출석했으며, 1967년 만리현 성결교회 집사 및 청년회장을 역임했다.

1979년 코비나성결교회를 전도사로 개척 담임하고, 미주 성결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980년-2010년 유니온교회를 개척했다. 1988년 미주성결교회 제9대 총회장을 역임하고, 2010년 30년간 담임한 유니온교회 담임 목회 사역을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 받았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학사), 서울대 교육대학원(석사), 애즈베리신학대학원(기독교교육학 석사), 웨스턴북음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목회학 박사)을 졸업했으며,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철학박사과정을 수학했다.

서울신학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미국 웨드미선대학교 교수 및 대학원장,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미주성결대학교 창설 총장, 풀러 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목회와 연구에 전념하며 수 많은 저서와 논문들, 조각글집 17권, 남겼으며, 지난 2016년 자신의 30년의 목회를 돌아보며 ‘함생목회론/함생사상론’을 바탕으로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저서를 펴냈다. 주디 한 기자

① 함생목회론이 더욱 좋은 연재를 갖게 감사합니다.
② 함생목회론이 받든 남한 목회자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③ 부끄러운 생명이 나의 전령 받은 아들인 모두 주님께께 라고 부끄러운 불모라함 삼진자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④ 내가 가장 섬기 헌신한 주님 고한 은혜로 주님 오신 편에 있게 하옵소서.
⑤ 한국인으로서 세계 선교에 모범적으로 앞장서게 하옵소서.
⑥ 성경교안으로 살모 있는 인본으로 계속 사랑해 주시옵소서.
⑦ 불을 부끄러워한 이 불의 태운 지니 34살이.
2024. 2. 14.
이정근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가을 스페셜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Ioniq 5 ONLY)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0¢/mi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179 / Mon - Tax
12,000 mile/year
For 24 Months
\$4,965 due at lease signing
MSRP \$47,805

\$13,000 Lease Cash Available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NEW 2024 HYUNDAI Santa Fe Limited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PAUL KIM 714.331.3855 | MIKE LEE 714.914.8414 | JUSTIN KIL 213.999.3935 | CHARLEY JEONG 213.276.8959 | JAMES PARK 213.839.3332 | HARLEY KIM 949.433.1378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외침, 복음통일입니다!

제5차 글로벌복음통일 미션컨퍼런스 BANGKOK 2024를 개최하는 이유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대표 임현수 목사)가 주최하는 제5차 글로벌 복음 통일 미션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29일(화)부터 11월 1일(금)까지 방콕한인연합교회(담임 신상태 목사)에서 개최된다.

“다음 세대와 복음 통일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컨퍼런스는 를 준비하는 박상원 목사(기드온동축선교회 대표)로부터 복음 통일 컨퍼런스의 개최 이유와 컨퍼런스를 섬기는 강사진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다.

질문: 북한 선교를 하신 지 18년이 됐습니다. 어려운 적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북한지하성도들과 주민들을 직접 돕는 것이 참 어려웠지만 코로나 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부터 안에서 편지와 동영상과 사진들로 소식을 전해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요?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이 3만 5천명이 됩니다. 그들이 무슨 수로 어떻게 고향을 떠나 중국을 거쳐서 한국과 미국 등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완전통제,

철통보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벌써 북한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좋게 보고 은밀하게 꾸준히 도와주는 중국성도들과 중국교포 도우미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질문: 작년 '달라스에서 4차 글로벌복음통일전문미션컨퍼런스'가 잘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탈북증언들과 2세 청년들의 발언 등 강 의 내용이 다양하면서 알차습니다.

마지막 대회날 저녁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 신사참배”의 저자 오창희 목사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듣고 이제까지 통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청년들(영여권 포함)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사참배 내용의 요약과 31가지 잘못된 배교’의 내용을 소개하자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분노를 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영적인 배교로 인해 우리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고 이해하게 되었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북녘 동족들이 돌아올 수 있



박상원 목사(기드온동축선교회 대표), @기독교일보

는 길이 우리들의 회개에 있음을 깨달음으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러한 깨달음과 감사와 회개, 찬양을 올리면서 아이들로부터 청년 어른들까지 뜨겁게 함께 찬양과 기쁨의 춤을 올려드리면서 요엘 선지자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비전)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라는 말씀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복음통일 역시 우리 민족 최대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문: 5차대회를 방콕에서 열게 된 계기는?

지난 대회에 강사로 참석한 신상태 목사(방콕한인연합교회 담임)께서 큰 감동 받고 아시아 디아스포라 교회에서도 해달라는 요청으로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호스트하겠다는 동의를 있어서 개최하게 되었어요.

질문: 제5차 글로벌복음통일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목사와 함께 한국에서 탈북민 목회자 신학생들 중에 강철호 목사, 온성도 목사 외 탈북신학생들과 그리고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온 다양한 지역 출신 탈북민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난 영여권 2세 들 중에서는 초대선교사의 후손 최우리 목사(시애틀베다니교회 담임)와 한국에서 기도로 청년들을 일깨우고 있는 코나열방대학 간사출신 마크 조 선교사(레츠 고 코리아 대표)의 통일기도운동의 필요성 그리고, 고려인 디아스포라들의 의미와 사명을 연구하고 직접 지역에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구 소련의 위성국가에서 이민 온 고려인 후손들을 섬기고 있는 전득안 목사(이주민종한지원센터 센터장)의 실제적인 이야기와 20년 넘게 다음세대를 성경적인 원리대로 교육하여 온 이희남 목사(벨국제아카데미 이사장)의 ‘다음세대를 넘어 실버세대들에게 복음통일사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통일은 대박이다’의 원저자 신장민 교수의 경제적인 방면에서의 통일비용대안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또한, 이민 3세대로 구성된 유소년소녀들의 시애틀 셋별예술단(단장 최시내 교수)의 국악찬양공연과 함께 조지포스 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수년간에 걸쳐서 탈북민들과 북한의 모습을 보여 통일을 그린 수십편의 그림들이 대회 중에 전시되고 이에 대한 의미를 강의할 박지해 미술작가의 퍼포먼스도 준비되었다.

끝으로 통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이 참석하여 ‘청년들, 통일을 소통하다’라는 자유발표를 하면서 마지막 날은 5차 대회장인 임현수 목사의 메시지와 기도 ‘복음통일을 위한 디아스포라들의 선언’으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참석을 확정 못하신 분들은 대회 직전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기드온동축선교회의 유튜브 TV 생중계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민선 기자

“비전 153을 실현하라”

한빛장로교회 사경회 송정명 목사 초청

엘문테에 위치한 한빛장로교회(Divine Light Presbyterian Church, 담임 구경모 목사)에서는 9월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가을사경회를 개최했다.

‘비전 153을 실현하라’는 주제로 열린 사경회 강사로 선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사경회 마지막 날인 22일 주일예배에서 ‘본이 되는 교회(살전

1:2-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비전의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나누었다.

송 목사는 “49년 전 이곳에 한빛장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물고기 153 마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잘 나와있는 말씀이다.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신다”며 “이 교회가 153의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비전을 점

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비전을 실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첫째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사랑의 수고 즉 헌신자가 많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 셋째,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50주년을 맞이하는 한빛장로교회가 되기 바란다”

구경모 목사는 교회 리모델링과 교회 웹사이트 개편을 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길 바란다



한빛장로교회는 송정명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사경회를 개최했다. ©한빛장로교회

다는 소망을 나눴다.

이날 집회는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웹사이트: www.divinelightpc.com/

주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lifornia 91732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Lic#854389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 전기세 50~90% 절감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www.btssolardesign.com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센터메디컬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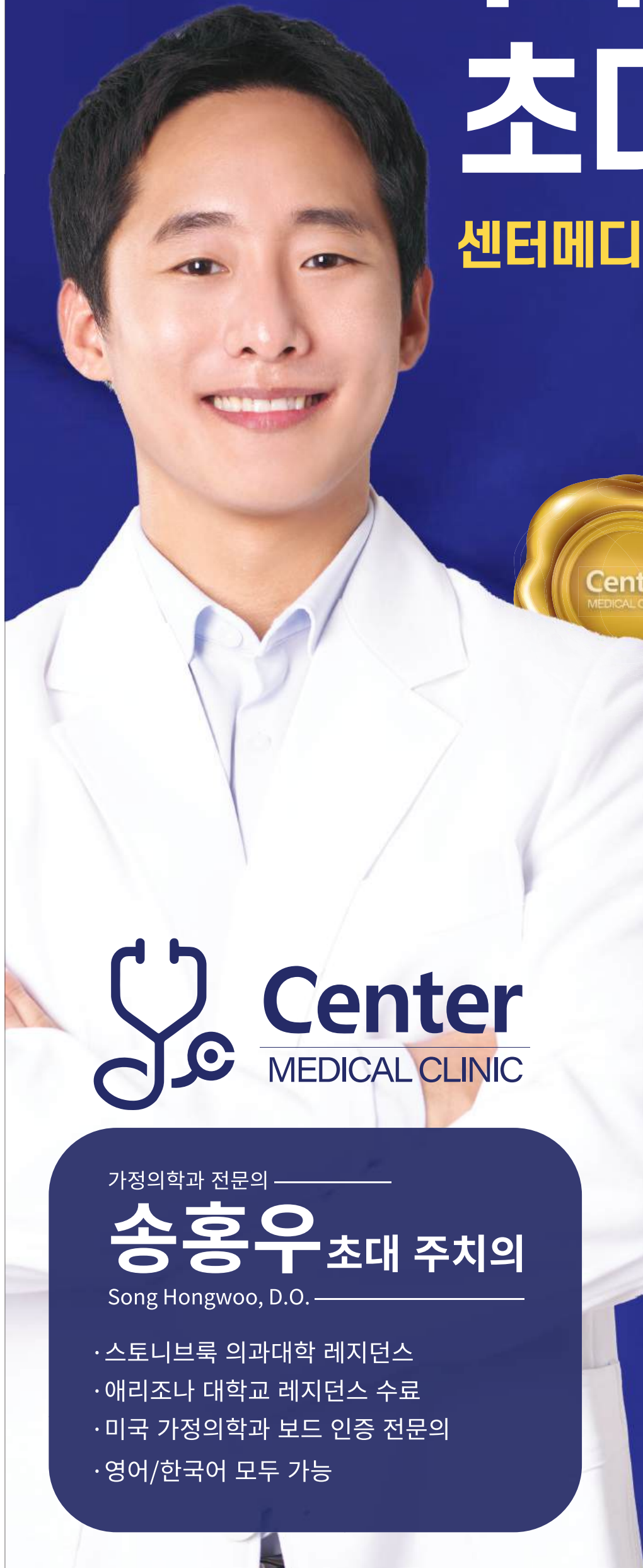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Welcome

LA 동부 어머님, 아버님~
(다이아몬드바, 로렌하이츠, 치노지역)

시니어분들을 초대합니다

센터메디컬클리닉 3호점 개원식



방문자에게 선물이 팡팡!

떡 &
풍성한
선물가방



Center
MEDICAL CLINIC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홍우 초대 주치의

Song Hongwoo, D.O.

- 스토니브룩 의과대학 레지던스
- 애리조나 대학교 레지던스 수료
- 미국 가정의학과 보드 인증 전문의
- 영어/한국어 모두 가능

센터메디컬클리닉

- 1 전문 간호사나 보조의사가 아닌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모든 과정을 담당
- 2 1인 1시간 꼼꼼한 진료
- 3 시니어 전문 케어

10월 1일 (화) 오전 10시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626) 363 - 4661

리셉셔니스트/LVN/RN 모집합니다.

로잔 50주년 기념행사 “세계교회 위한 예언자적 목소리 계속 낼 것”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셋째 날 저녁 진행. 전략적 협력 비전으로 ‘제자 삼기·양육, 디지털 도구’(3D) 제시

24일 저녁,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컨벤시아 메인홀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과 복음주의 신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로잔운동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시간이 진행됐다.

제4차 로잔대회 셋째 날 저녁에 배 시간에 진행된 ‘로잔대회 50주년 기념행사’는 국제로잔 측에서 준비한 다양한 기념 영상과 대담, 발표, 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로잔 생일 영상과 카운트다운 비디오, 시그널 영상 등을 상영한 후, 존 스토틀(John Stott) 목사와 함께 로잔운동을 시작한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목사가 1979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로잔대회 개막식에서 전한 ‘왜 로잔인가’ 영상이 상영됐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당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 영적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서부터 나오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나 타협이 없는 성경적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 자신감이 있고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티 밴드의 아카펠라 찬양, 환영 순서 후 로잔 50주년 영상 상영이 있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로잔운동에 참여해 온 다양한 세대의 글로벌 인사들이 대담에서는 로잔을 만나게 된 과정과 이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현재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등 인터뷰 및 간증을 전했다. 이들은 “로잔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십, 청지기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로잔은 함께 연합해서



로잔대회 5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

서로의 마음을 듣고 경청하는 기록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팀의 로잔을 위한 시 낭송과 공연 특순에 이어 국제로잔 명예 공동의장 마이클 카시디(Michael Cassidy)는 영상을 통해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온전한 꿈과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선포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전 로잔 기획자들과의 대담에서는 에스메 바워스(Esme Bowers) 목사, 발디르 슈테우나르켈(Valdir Steuergel) 목사, 국제로잔 전 총재 더그 버드셀(Doug Birdsall) 목사와 사회자로 국제로잔 공동부의장 멘치트 웡(Menchit Wong, 국제컴패션)이 참여해 어린이 사역과 젊은 세대 사역, 차세대 리더 사역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로잔을 통해 다음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으로 “겸손, 우정, 기도, 연구, 협력적 관계, 소망 등 로잔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시작은 겸손이며 끝은 소망”이라며 “우리는 우리 세대를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며,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해하고, 신학적 이론은 선교라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

다”라며 다 함께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 복음을 전한다”(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는 로잔의 비전을 외쳤다.

테이블 그룹 나눔에서는 탁자 위에 준비돼 있던 기도카드를 나누고 축하 풍선을 불어 날리면서 모두가 기쁨 가운데 로잔 5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의장 굿윌 샤나 박사는 로잔 50주년 축하 영상에서 “로잔은 50년 동안 꾸준히 전 세계 리더십, 선교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을 높이 평가하며, 대위임령 현황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말했다. 임파워드21(Empowered21) 국제의장 빌리 윌슨(Billy Wilson) 목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을 기억하고 긴박성을 가져야 한다”며 “다양한 교파의 복음주의자들과 오순절교회, 카리스마틱 교회들이 모여 협력하는 것을 기리고, 새로운 협업적 복음주의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손자인 윌 그레이엄(Will Graham) 목사는 “50년이 지난 후 아직도 지상명령의 과업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와 성경,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화해야 한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로잔 총재 마이클 오 목사는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로잔은 전략적 협력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가장 신선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계교회가 성경적 신앙

을 추구하고 전략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향후 50년 동안 예언자적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협력의 미래 비전으로 3D, 곧 “제자를 삼고(disciple-making), 양육하며(disciple-maturing),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오 목사는 이날 “성서적 기독교는 두려움이 없고 타협하지 않는다. 또

를 위한 글로벌 연합 디렉터로, 젊은 세대 로잔 그룹인 YLGen을 이끄는 나나 야우(Nana Yaw) 목사는 ‘YLG 2026’ 소개에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태어난 젊은 리더들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과 다를 것”이라며 “디지털 도구가 있어야 충실한 주님의 리더를 양육하고 발굴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 2050년까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



대회 참가자들이 로잔대회 기념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신감이 있고 겸손한 믿음이 있으며, 회개하고 배우기를 꺼리지 않는다”라며 “강력한 신앙고백이 들어간 50년 전 로잔언약은 아직도 견고한 인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교회를 떠받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향후 50년 동안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제자를 삼고 양육하고 훈련하며, 디지털과의 협력적 행동은 이번 대회의 핵심”이라며 3D를 소개했다. 특히 디지털 세상을 맞아 제자를 삼고 훈련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인 ‘디지털의 활용’을 강조하며 “이번 대회에서 개발하고 론칭하는 디지털 도구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있던 전문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필요한 분들과 소통하도록 하여 협업적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제로잔 내 세대

를 보려면 젊은 리더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에 개최될 YLG 대회를 위한 기부를 요청했고, 5만 달러의 매칭 기부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이클 오 목사와 더그 버드셀 목사는 여러 지역과 세대, 워킹 그룹과 네트워크 등 로잔에서 새로 임명된 리더십과 봉사자들, 이사회와 자문 등을 소개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버드셀 목사가 ‘결단’의 기도를 인도한 후 국제로잔 이슈 네트워크 글로벌 디렉터 타냐 반 호른(Tanya Van Horne) 목사의 축도로 셋째 날 일정을 마쳤다. 이 외에도 케이스 게티(Keith Getty) 인터뷰와 게티 밴드의 찬양, 게티 콘서트 등이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이지희 기자



로잔대회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낙원

최고의 맛과 품위를 드리는

캐더링

각종 모임과 단체행사 파티의 고민!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캐더링이
책임지겠습니다.

Outcall Wedding Consultation

Custom-made Decoration Service






- 결혼피로연 - 음식배달서비스일체
- 교회 행사 - 창립기념일 및 임직식
- 각종모임, 파티음식 (10인이상 환영, 향우회, 동창회 개업식 축하기념식 크고 작은 모임)

- 생일 돌잔치 회갑연 - 전문 요리사
- 출장 즉석 갈비구이 - 야외 파티시

낙원캐더링의 차별화된
테이블 서비스로
고급 분위기 연출

낙원캐더링

NAKWON CATERING

323-466-3737

456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www.nakwoncateringla.com



공식 타이틀 후원사



센터메디컬그룹 창립 10주년



미스트롯3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GALA/DINNER SHOW

10월 12일 <토> 6 PM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
WILSHIRE GRAND BALLROOM II
900 WILSHIRE BLVD, LA, CA 90017

RESERVATION ONLY | \$500부터

LIVE CONCERT

10월 13일 <일> 6 PM

SHRINE
SHRINE AUDITORIUM
665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50 ~ \$350



김소연

나영

염유리

미스김

정슬

배아현

정서주

오유진



\$350 | 300 | 275 | 250 | 225 | 200 | 180 | 175 | 150
125 | 120 | 115 | 110 | 100 | 90 | 85 | 75 | 70 | 65 | 50

Ticket Price

특별 협찬



MANHEE KOJU FOUNDATION

서울스트리트



A&E재단 3대 은행



ASIANA AIRLINES



공연 판매처 티켓 문의. (213)459-6800 | (213)459-6802 (월~금, 9AM~6PM)

상호	전화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소
삼호관광 LA	(213) 427-5500	2580 W. Olympic Blvd. Unit #2, LA, CA 90006	한우리여행사	(213) 388-4141	1001 S. Vermont Ave. LA, CA 90006
한남체인 LA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한남체인 델라모	(424) 955-1234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헤이리 카페	(213) 389-6138	755 S. Hobart Blvd. LA, CA 90005	GC Natural 부에나파크	(714) 870-7582	6081 Dale St. #B, Buena Park, CA 90621
천종산삼 LA 월서	(213) 388-1234	3906 Wilshire Blvd. LA, CA 90010	천종산삼 부에나파크	(562) 902-1235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213) 387-7733	965 Normandie Ave. STE 200, LA, CA 90006	Jamie's Beauty 가든그로브(아리랑마켓)	(714) 356-7773	9580 Garden Grove Blvd. #303, Garden Grove, CA 92844
태양여행사	(213) 252-9700	3030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도르가서점 가든그로브	(714) 636-7430	911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어떻게 비전을 발견하고, 실현할 것인가? 그 답은...”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 <생명의 서>의 저자 살롬 김 목사

지난 8월 TV기독교일보의 '늘 새롭게'에서는 살롬 김 목사(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를 초청해 이 사역에 담긴 의미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들어 보았다.

그는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은 비전과 멘토링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단체라며,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나에 대해 가지고 계신 미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비전을 모른 채 살아가니까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믿음이 있음에도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식으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롬 김 목사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비전을 먼저 발견하고 실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멘토링'이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말씀하시지만, 제자 12명에게 돌아오죠. 이 소그룹의 핵심은 멘토링 방식의 제자훈련이었어요.”

그는 많은 이들이 비전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은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을 찾아준다고 말했다.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목사님들, 교수님도, 변호사도 비전이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이 없이 살아가요. 저희 단체는 각자의 비전을 찾아 주는 기관입니다.”

물론, 이 단체를 설립하고, 비전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오랜 검증의 시간을 거쳤고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며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검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그는 비전 멘토링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제자입니까?>를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와의 만남을 꼽았다.

“결정적으로 멘토를 붙여 주셨죠. 그분이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Juan Carlos Ortiz) 목사입니다. Fuller 신학교에서 학업 할 때 제가 몇 가지 기도를 한 것 중에, '저에게 멘토를 붙여주세요.', '영어와 통역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있었습니다.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제 멘토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의도해서 제가 '멘토해주세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수성교회에서 스페인어권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피부암에 걸려서 은퇴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학교로 오시게 되었죠.”

살롬 김 목사는 오르티즈 목사의 강의를 통역하며, 목요일마다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게 있다. 그분의 성경 공부는 일반적인 성경공부식의 제자훈련이 아니다. 말씀이 살아서 삶 속으로 쑥 들어가게 하거든요. 제자훈련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가정, 개인, 가정, 교회, 직장이 변화되도록 해요. 제가 늘 감동을 받았고, 통역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는 그의 강의를 통역하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은 없습니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기도 응답으로 받은 해답이 비전 멘토링이었다.

“그동안 교회는 '전도와 선교, 교육과 봉사' 일반적 사역 강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찾아주는 데에는 미흡”

패했나고 할 때, 오늘 대화 가운데서 얻게 되는 통찰은, 예수님의 멘토링을 통한 제자훈련의 결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제자 훈련에서 빠졌던 두 가지 핵심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비전, 두 번째가 멘토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제자 훈련은,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것, 즉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성경공부를 중요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찾아주려고 안했고, 전도, 선교, 교육, 봉사라는 일반적인 사역만 강조된 거죠. 그런데 본질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전인데, 예수님도 개인적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명, 본질적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었고, 또 예수님은 멘토링 방식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나보다 더 잘 완수해 낼 사람 12명을 만들어 내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살롬 김 목사는, 비전 멘토링을 교회 울타



살롬 김 목사(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가 TV 기독교일보 '늘 새롭게'에 출연해 비전 멘토링에 대해 나누었다. ©TV기독교일보

“그동안 교회는 '전도와 선교, 교육과 봉사' 일반적 사역 강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찾아주는 데에는 미흡”

살롬 김 목사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이고, 성령님의 방법이였다”라며 공감했다.

인터뷰를 함께 진행한 곽윤영 집사는 몇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생명의 서: 지혜를 전수하며 영원을 준비하는 자서전 쓰기>라는 살롬 김 목사의 책으로 비전 멘토링을 경험해 오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이것의 결정체가 <생명의 서>죠. 이 책을 만나고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뭘 하자' 그러면 순순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런 게 있다는데, 당신이 한번 판단 좀 해봐'라고 말하고 그냥 한 페이지를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그게 바로 내가 요즘 목상하고 있는 거야'라고 했다. 그 이후 꾸준히 남편과 이 책을 한 페이지씩 읽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다.”

오랫동안 교육에 몸 담아 왔던 살롬 김 목사는 새로운 사역의 방향이 생겼다.

“주님이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라는 지령을 내리셨어요. 비전 멘토링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샘플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것, 비전 멘토링으로 살아내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살롬 김 목사는 한남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학사를 받은 후, 국제 로타리 클럽 장학생으로 알라스카 주립대에서 창작, 문학 비평과 연극 연출을 공부하였고, Fuller 신학교 대학원에서 가정과 목회 상담학으로 석사를, 인성, 문화, 신학으로 통합하는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리를 넘어, “하나님의 교육 경영 원리”라며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알아차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식은 멘토링이라는 거, 교육학자들은 다 알죠. 우리 개인도 누구나 멘토링을 원하죠.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교육한다면 세대 차이가 없어질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육체적 양육을 필요로 하는 유소년기를 지나면, 청소년기부터 부모는 자녀의 멘토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을 알고, 비전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동반자, 지원자, 후원자로 가면 됩니다. 그것이 보혜사의 정확한 뜻이에요. 가정, 기업, 선교지에서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사람을 키워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요”라고 말했다.

“이것이 결정체가 <생명의 서>죠. 이 책을 만나고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뭘 하자' 그러면 순순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런 게 있다는데, 당신이 한번 판단 좀 해봐'라고 말하고 그냥 한 페이지를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그게 바로 내가 요즘 목상하고 있는 거야'라고 했다. 그 이후 꾸준히 남편과 이 책을 한 페이지씩 읽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다.”

오랫동안 교육에 몸 담아 왔던 살롬 김 목사는 새로운 사역의 방향이 생겼다.

“주님이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라는 지령을 내리셨어요. 비전 멘토링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샘플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것, 비전 멘토링으로 살아내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살롬 김 목사는 한남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학사를 받은 후, 국제 로타리 클럽 장학생으로 알라스카 주립대에서 창작, 문학 비평과 연극 연출을 공부하였고, Fuller 신학교 대학원에서 가정과 목회 상담학으로 석사를, 인성, 문화, 신학으로 통합하는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것이 결정체가 <생명의 서>죠. 이 책을 만나고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뭘 하자' 그러면 순순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런 게 있다는데, 당신이 한번 판단 좀 해봐'라고 말하고 그냥 한 페이지를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그게 바로 내가 요즘 목상하고 있는 거야'라고 했다. 그 이후 꾸준히 남편과 이 책을 한 페이지씩 읽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다.”

오랫동안 교육에 몸 담아 왔던 살롬 김 목사는 새로운 사역의 방향이 생겼다.

“주님이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라는 지령을 내리셨어요. 비전 멘토링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샘플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것, 비전 멘토링으로 살아내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살롬 김 목사는 한남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학사를 받은 후, 국제 로타리 클럽 장학생으로 알라스카 주립대에서 창작, 문학 비평과 연극 연출을 공부하였고, Fuller 신학교 대학원에서 가정과 목회 상담학으로 석사를, 인성, 문화, 신학으로 통합하는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것이 결정체가 <생명의 서>죠. 이 책을 만나고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제가, '뭘 하자' 그러면 순순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런 게 있다는데, 당신이 한번 판단 좀 해봐'라고 말하고 그냥 한 페이지를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그게 바로 내가 요즘 목상하고 있는 거야'라고 했다. 그 이후 꾸준히 남편과 이 책을 한 페이지씩 읽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다.”

이종범 전 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별세

샌디에고 영락교회 2대 담임을 역임한 이종범 목사(Reverend Joseph Jongbum Lee)가 지난 9월 1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1세.

이목사는 영락교회 고 환경직 목사의 비서로 섬겼으며, 1979년 샌디에고 영락교회 제2

대 담임목사로 부름을 받아 25년간 겸손과 헌신으로 회중을 인도했다. 2005년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6년 2개월간 우즈베키스탄 신학교에서 현지인들을 가르쳤다. 은퇴 후에도 코비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했다.

메모리얼 예배는 10월 12일(토) 오전 10시 보니타글렌에비 메모리얼 파크 & 모투어리 (Glen Abbey Memorial Park & Mortuary, 3388 Bonita Rd. Bonita)에서 거행된다.

고인은 1943년 11월 10일 생으로 대광고등학교, 숭실대, 장로회신학대학교, 샌디에고 Southern California Seminary 졸업했으며 전 영락교회 환경직 목사 비서를 역임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이순자 사모와 은경, 우미,

사론, 손주 8명이 있다. 15세 때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사진에 깊이 감동을 받고, 환상을 체험했다. 주디한 기자 연락처: (619)772-7043 고 이종범 목사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눈 건강
눈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긴'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잘 수 없는 상황에 놓은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J1 Mارت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미 국제종교자유위, “베트남, 종교자유 20년 전 보다 퇴행”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호치민 묘소. ©Jay Karpur/ Unsplash.com

베트남이 20년 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된 후 초기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교의 자유가 악화되었다고 새로운 보고서가 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04년 베트남이 CPC로 지정되면서 이듬해 종교적 권리 개선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퇴행을 겪었다고 이번 달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보고서는 밝혔다.

USCIRF 보고서는 “베트남은 정부가 2005년 합의 조건을 대부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종교자유(IRF)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전적인 사례”라며 “정책 적용의 일관성 부족으로 종교 자유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전했다. 미국은 베트남 지도부와 긴밀한 대화를 유지해 왔으나, 국가 차원의 종교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2004년과 2005년 베트남의 CPC 지정은 종교적 권리를 위해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이어진 유일한 사례다. 베트남은 2005년 5월, 미국 국무부와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새로운 종교적 권리 법률을 시행했다. 또한 지역 당국에 새로운 법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종교 단체가 예배당을 열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당시 베트남은 중부 고원 지역에 폐쇄된 교회를 재개하고, 신앙 포기 강요를 금지하며, 교회 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할 지침을 발표했다. USCIRF는 2005년과 2006년 연례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민주주의, 언론 자유, 종교 자유 지지자 몇 명을 석방하고,

공직자에게 시민의 신앙 포기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앙 포기 강요 금지 조항에는 이를 강요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명시되지 않았다. 베트남은 또한 종교 단체의 등록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에 대한 공식 답변 기한을 명시하며, 거부된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보장한 ‘법령 22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전례 없는 수의 종교 단체가 등록했으며, 2006년 CPC 지정이 철회된 지 1년 만에 미국은 베트남에 영구적인 정상무역 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고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승인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베트남의 경제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종교 자유 문제에서도 일부 개선을 가져왔다. 하지만 USCIRF와 다른 관측자들은 CPC 철회와 무역 정상화가 시기상조였다고 주장했다”며 “그 후 수년 동안 베트남에서 새로운 종교 규제 법률의 시행은 지역별로 일관되지 않았고, 반체제 인사와 소수 민족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침해가 계속되었다”고 전했다. USCIRF는 10년간의 회고에서 베트남에서 무역 목표를 추구하던 미국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CPC 지위 철회를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6년 베트남이 신앙 및 종교법을 통과시켰을 때, 이해 관계자들은 이 법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지만, 허용 가능한 종교 활동을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국가의 통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관찰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헤즈볼라, 나사렛, 갈릴리 등 로켓 공격... 성지 파괴 위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1일 이른 아침 이스라엘 이스라엘 계곡을 포함해 나사렛, 하이파, 라맛 데이비드 공군 기지, 아플라, 갈릴리 하부 등에 로켓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지도자회의(Congress of Christian Leaders) 의장인 조니 무어는 소셜 미디어에 “또 다시 나사렛을 향한 헤즈볼라 로켓 폭격이 있었다. 이곳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인구의 70%는 무슬림, 30%는 기독교인이며 거의 전부 아랍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개월 동안 헤즈볼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지리적 중심지인 갈릴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공격은 21일 오전 1시 10분, 4시 48분, 5시 10분경에 발생했으며, 소셜 미디어와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해당 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육군 라디오는 하이파 인근의 라맛 데이비드 기지에 대한 공격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하며, 이스라엘방위군(IDF)이 레바논 남부의 목표물을 타격해 보복했다고 보도했다.

헤즈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최근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 공군 작전으로 최고 사령관을 포함한 여러 명의 사망한 데 대한 보복임을 시인하며, 라맛 데이비드 기지와 공항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헤즈볼라는 라맛 데이비드 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공군 기지 중 하나라는 설명과 함께 그 배치와 기능을 상세히 소개했다.

IDF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새벽 공격

으로 4번의 포격 동안 40여 발의 로켓이 발사되었다. 이스라엘 북부의 모사브 스텔 아야코프에서는 로켓이 떨어졌으며, 크파르 바루크는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이스라엘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예백 이스라엘 지역 의회는 해당 지역에 로켓이 떨어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독립 공영 방송사 칸에 따르면, 나사렛에서도 로켓이 떨어져 시내 경계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국립 응급 의료 서비스인 '마겐 데이비드 아돔'(Magen David Adom)은 공격 중 갈릴리 하부 지역에서 60세 남성이 폭발로 인해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피해로는, 베트 셰어임에 있는 헛간이 공격을 받아 여러 마리의 소가 죽었다고 칸과 이스라엘 육군 라디오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계속되는 로켓 위협에 따라 미폭발물질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로켓 파편을 만지지 말라는 공공 경고를 발령했다. 한편, 키르얏브논 주민들은 공격 도중 공공 대피소가 잠겨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헤즈볼라 계열의 레바논 매체인 알 하다스는 하이파와 갈릴리 상부를 향해 로켓 100발이 발사되었다고 주장하며, 공격 규모에 대한 보고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이스라엘방위군은 그 수가 훨씬 적다고 주장하며 약 10발의 로켓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공격으로 하이파 북쪽 지역은 야외 공공 모임은 30명, 실내 모임은 300명으로 제한되었으며, 헤즈볼라의 향후 공격에 따라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유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사제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부터 시작하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교차로)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생애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CMC 종교대학 오전 11:30 교육관 4층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성령의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리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리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틴어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사(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M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우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찬양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재정서사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의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인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기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심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새벽 6:0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미 남침례회, 성학대 혐의 법률 비용 부담에 본부 매각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에 위치한 남침례회 총회 본부. ©구글맵

미국 남침례회(SBC)가 헌금 감소와 성학대 혐의 처리 조사로 인한 법적 비용 증가로 테네시주 내슈빌의 교단 본부 건물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지역 매체 테네시언(The Tennessean)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901 커머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이 7층 건물의 매각은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SBC 집행위원회 의장 필립 로버트슨은 16일(현지 시간)에 열린 정기 회의 후 매각 소식을 알렸다.

로버트슨은 회원들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고, SBC 건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회장에게 승인했다”고 전했다. 테네시언은 내슈빌 계획 부서의 자료를 인용해 이 건물이 2021년에 3170만 달러로 평가되었다고 보도했다. SBC는 40년 전 8개의 교단 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이 건물을 짓는데 800만 달러를 들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당시 주일학교 위원회였던 라이프웨이(Lifeway)가 기부한 토지에 건설되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내슈빌 비즈니스 저널에 이 건물이 내슈빌에서 가장 변화하고 주목받는 개발 지역 중 하나인 내슈빌 야드(Nashville Yards)에 위치해 있어 개발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라고 전했다. 이 지역은 사우스웨스트 밸류 파트너(Southwest Value Partners)가 주도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6개월 내에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개발 계획에는 8만 평방 피트의 그룹 및 컨벤션 회의 공간을 갖춘 두 개의 고급 호텔과, AEG 프리젠티가 운영하는 4500명 수용 규모의 라이브 음악 및 이벤트 장소 ‘더 피나클(The Pin-

nacle)’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7에이커 이상의 개방형 공간, 2000개 이상의 주거 공간, 300만 평방피트 이상의 사무 공간, 식당 및 소매점도 들어설 예정이다.

랜드 어드바이저(Land Advisors)의 중개인 에릭 딘스는 내슈빌 비즈니스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곳은 내슈빌 엔터테인먼트 지구의 중심이자, 비즈니스 지구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남침례회의 성학대 혐의를 조사한 ‘가이드포스트솔루션’(Guidepost Solutions)은 조사 결과, 교단 지도부가 성학대 혐의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피해자와 지지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으며, 위협적인 학대에 연루되고, 책임 회피를 위해 교회 안전을 위한 개혁을 거부해 왔다고 보고했다. SBC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가이드포스트솔루션 보고서로 인해 소송과 법무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20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변호사 비용으로만 121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 재정 소위원회 위원장 아담 와이어트는 이번 주 배티스트프레스(BP)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 협력 프로그램(Cooperative Program) 기금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의 예비 기금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BP에 따르면, SBC 지도부가 교회 내 성학대 혐의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한 가이드포스트 조사에만 310만 달러가 소요되었고, 법적 비용과 전담 위원회(TF) 비용은 총 110만 달러에 달했다. 사건 관리에는 200만 달러 이상이 지출되었으며, 법무부 조사를 위해 200만 달러가 사용되었다.

김유진 기자

美 학부모들 ‘자녀의 LGBT 교육 거부 권리’ 대법원에 요청

미국 메릴랜드의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부모 단체가 대법원에 성소수자(LGBT) 이념을 조장하는 교육 내용에서 자녀를 제외할 권리를 회복해 줄 것을 청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 요청은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 위원회가 초등 교육용 특정 동화책과 관련해, 부모의 ‘선택적 제외’(opt-out) 권리를 제거한 데 따른 것이다.

‘마흐무드 대 테일러(Mahmoud v. Taylor)’ 사건은 제4순회 항소법원이 교육 위원회의 정책을 지지한 후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독교인, 유대교, 이슬람교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률 단체 베킷(Becket)이 밝혔다.

2022년에 도입된 이 정책은 유치원생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동화책에 적용되며, 성 전환, 동성애 페어리드, 선호하는 성 대명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3세와 4세 아동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 위원회는 학생들의 높은 결석률과 많은 선택적 제외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의 선택적 제외를 허용하면 성소수자 이념의 책을 선호하는 학생과 가족이 ‘사회적 낙인’에 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학부모 권리 옹호 단체인 ‘키즈퍼스트(Kids First)’의 이사 그레이스 모리슨은 학교 위원회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모리슨은 “교육 위원회

는 전 세계 여러 정부에서 거부한 논란이 많은 이념을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위원회 소속 교장들조차도 해당 내용이 이 연령대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고 베킷을 통해 밝혔다.

이념적 논란 외에도, 이 책들은 어린 학생들이 부모들이 우려하는 주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책에서는 어린이들이 남성 성과 여성의 특성을 함께 지닌 제3의 성을 의미하는 ‘인터섹스 깃발’을 비롯해, ‘드래그 퀸’, ‘숙곳’, ‘가족’ 및 유명한 성소수자 활동가와 성노동자의 이름 등 다양한 성과 성별 표현과 관련된 이미지를 접하도록 장려한다.

베킷의 부사장 겸 수석 변호사인 에릭 벅스터는 이전 CP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는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은 부모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위원회가 이러한 논의에서 부모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은 학부모의 자유, 아동의 순진무구함,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데보라 보드먼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학부모들이 요청한 임시 금지 명령을 거부하며, 학교의 조치가 세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보드먼 판사는 교실에서 이러한 책들과 관련된 활동은 세뇌가 아닌 관용을 장려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유진 기자

北억류 김정욱 선교사, 4000일 구금... 美·캐나다 즉각 석방 촉구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미 국무부 영상 캡처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60)의 구금 기간이 4000일을 넘어서면서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북한 당국에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욱 선교사의 억류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밀러 대변인은 “김 선교사는 다른 5명의 한국인과 함께 북한에 구금돼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번 성명을 통해 북한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북한이 공정한 공개 재판을 거부당하고, 부당하거나 자의적 구금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사법 체계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부족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규탄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선교사들과 정치적 반대자로 간

주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관행은 종교, 신념의 자유를 축소하고 개인을 침묵시키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정부도 북한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신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던 중 체포되어 이듬해 국가전복 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 등 총 6명의 한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장기간 불법 억류 및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의 이번 성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고, 억류된 한국인들의 인권 보호와 신속한 송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반응과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응이 주목된다. 김유진 기자

릭 조이너 목사의 사역단체, 전 봉사자 성추문 논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모닝스타미니스트리(Morningstar Ministries) 관계자들이 전직 자원봉사자가 일했던 성추문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단체는 모닝스타펠로우십교회의 리크 조이너 목사가 이끌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두 명의 피해자가 “모닝스타미니스트리의 전 자원봉사자이자 전 경찰관 에릭슨 더글라스 리(Erickson Douglas Lee)가 사역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러 명의 소녀들에게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헤럴드에 따르면, 리는 미성년자에 대한 2급 및 3급 성적 행위, 1급 폭행 및 기타,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및 미성년자 범죄 조장 혐의에 대해 인정된 후 9월 6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리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존도1(가명)과 그의 부모는 8월 제출한 40쪽 분량의 소장에서 “릭 조이너를 비롯한 단체의 여러 고위 간부 및 직원들이 사역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성적 학대 사건을 은폐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릭 조이너, 모닝스타펠로우십교회, 이 단체의 2인자 데이비드 안스, 전직 자원봉사자 에릭슨 더글라스 리, 에릭슨의 아버지이자 모닝스타펠로우십교회의 보안 책임자인 더글러스 리, 에릭슨 더글러스 리의 비서인 체이스 포르텔로, 그리고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제임스 스미스 1-10(소송과 관련된 단체의 다른 대리인 또는 직원)이 피고인 명단에 올랐다.

존도2(가명)도 9월 3일 제기한 소송에서 유사한 주장을 했고, 존도3(가명)도 9월 5일 피고인을 상대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생한 학대와 관련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로펌 ‘맥고완, 후드, 펠더 앤 필립스’(McGowan, Hood, Felder, and Phillips)의 랜디 후드 변호사와 채드 맥고완 변호사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존도1, 2, 3으로 표기했다”고 했다. 피해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리

가 그를 학대하기 시작했을 때 겨우 13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존도1은 리가 그와 다른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기 전 모닝스타펠로우십교회가 다른 성적 학대 및 착취 사건을 은폐하고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여러 피고인이 리의 부정 행위를 직접 목격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리를 보조했던 체이스 포르텔로는 그가 피해자를 위협하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후드 변호사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기본적인 사실은 모닝스타펠로우십교회 지도자들은 이 청소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학대의 대부분을 직접 목격한 후에도 가해자를 방조하고 보호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여러 차례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 중 최소 1명은 리가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려는 시도를 도우면서 그 사실을 덮어버리려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모닝스타미니스트리 관계자들은 25세의 리를 아동 성범죄자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이슈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유 중 하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자원봉사자가 경찰관이었다는 점이다. 경찰관이라는 그의 지위 때문에, 그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경찰관으로서 그의 지위 때문에 그가 청소년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 사건의 여파 속에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청소년 근로자로서 경찰관을 신뢰할 수 없다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자문하게 된다”고 했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리가 우리 단체에서 일하기 전 여러 차례의 신원조위를 거쳤지만, 그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구경모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안 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전날) 금(30)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톨릭)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 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들뜸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아기들)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말뚝)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복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am.com

주일 1부 8:00AM 중교동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8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에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에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영양)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새벽예배 오전 8:00 OC예배 오후 7:30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200M)

금요일(영양) 오후 7:45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014 Riata St., Northridge, CA 91324, (818) 89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 219-5434 www.sammo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지동근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kcc.org/lvkk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교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이병걸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 685-2212 / woorijoo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살 오방면, 솔방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샤인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갈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남부노회 2024년 가을 정기노회

9월 23일(월)
하이 데저트 중앙교회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 America General Assembly, 이하 RPCA) 남부노회는 9월 23일(월) 오전 11시 하이 데저트 중앙교회(담임 홍정택 목사, 13878 Apple Valley Rd, Apple Valley, CA 92307)에서 2024년 가을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예배는 김영일 목사(서기)의 인도로, 강성수 목사(중경노회장)가 대표 기도하고, 이영근 목사(부노회장)가 “기도의 9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성찬 예식은 홍정택 목사의 집례 하에 고무디 목사가 분병, 최영호 목사가 분찬, 김영일 목사가 광고하고, 김선광 목사(노회장)의 축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RPCA) 남부노회는 9월 23일 하이 데저트 중앙교회(담임 홍정택 목사)에서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도로 마쳤다.

2부 회의는 김선광 목사(노회장)의 인도 아래 김영일 목사가 회원 점명과 성원 보고를 하고, 개회 선언, 의장 인사 이후 안건 채택과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채택했으며, 이영근 목사가 기도하고 의장 김선광 노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순서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창립 10주년을 맞은 센터메디컬 킥오프 미팅

시니어를 위한 전문 의료를 위해 10년간 열심히 달려 온 센터메디컬그룹이 9월 24일 풀러턴에 위치한 서밋하우스(Summit House) 레스토랑에서 성대한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메디컬그룹의 킥오프 미팅은 매년 열리는 연례행사로 해당 메디컬그룹이 일 년간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하여 나누는 모임이다. 이날은 특별히 창립 10주년을 맞아 OC와 LA 지역이 함께 자리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남가주 주치의, 전문가, 보험사와 에이전트들까지 약 250 여 명의 메디컬 종사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센터메디컬그룹의 CEO 이익준 박사와 센터메디컬그룹 Jay Choi 회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새롭게 손을 잡은 보험사, Imperial Health Plan의 부회장이 축하 말을 건네며 행사가 시작되었다.

2030년까지 10,000 이상의 시니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13개의 직영 클리닉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한 센터메디컬그룹은 이미 열린 직영클리닉 1호점, 2호점을 더불어 10월에 개원할 3호점 소식도 알렸다.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중 큰 호응을 받은 순서는 새로운 대형 병원들과



창립 10주년을 맞은 센터메디컬그룹이 9월 24일 풀러턴에 위치한 서밋하우스(Summit House)에서 성대한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계약된 소식이었다. 오렌지카운티는 UCI, 엘에이 카운티는 Hollywood Presbyterian Medial Center, 사우스베이 지역은 Harbor-UCLA Medical Center와의 계약을 알리며 주치의들, 전문가들,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외홍보팀은 2024년 동안 진행된 창립 10주년의 크고 작은 행사와 혜택을 정리하며 앞으로 가입 환자들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사회공헌’을 통해 받은 것을 보답하는 센터메디컬그룹이 되겠다 약속했다.

이날 센터메디컬 그룹은 참가자 모두에게 준비한 선물과 새롭게 간

된 디렉토리(주치의, 전문가 등 주소록)를 전달했고, 추첨 선물도 풍성히 준비해 킥오프에 참여한 게스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했다.

한인사회를 넘어 미주 전 사회로 확장해 나갈 센터메디컬그룹의 비전을 위해 참여자 전원이 간배를 외치며 훈훈하게 마무리된 2024년 센터메디컬그룹 킥오프는 참여자가 모두 활짝 웃으며 퇴장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센터메디컬 그룹은 한인사회를 넘어, 다민족, 다인종을 섬기며,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단신

▶ 제51회 LA 코리아 페스티벌 9/26-9/29(목-주일)
미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최대 축제 ‘2024 코리아 퍼레이드 & 페스티벌’이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LA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진다.

27일(금) 3시 30분 LAPD밴드, 4시 20분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 공연, 5시 30분 Kpop 브레이크 공연, 7시 30분 M 태권도 시범단 공연
28일(토) 오전 11시 시니어 노래 잔치, 2시 30분 Kpop 쇼케이스, 5시 25분 아시아인 드림 축제, 7시 30분 M 태권도 시범단 공연
29일(주일) 2기 30분 Kpop 쇼케이스, 8시 폐막식

▶ 오렌지한인교회 찬양부흥회
오렌지한인교회(담임 정유성 목사)는 9월 27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찬양집회를 연다. 질정은 금 오후 7:30, 토 오전 6:00, 오후 6:30, 주일 오전 8:00, 9:30, 11:00

▶ 재소자 후원 오네시모 선교회
오네시모선교회(대표 최준성 목사, 후원회장 한영숙 권사)는 오는 29일(주일) 오후 5시 나침

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1200 W. Lambert Rd., Brea)에서 제 21회 오네시모선교회 ‘후원음악회’를 개최한다.

▶ 늘푸른 선교교회 9/29 창립 22주년
애나하임 늘푸른선교회(담임 안창훈 목사,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el (714) 808-9191)는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오는 9월 29(주일) 오전 11시에 드린다.

▶ 세계선교회 9/29 창립 51주년
9월 29일 세계선교회(담임 김창섭 목사,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388-1927)는 창립 51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른 찬양 사역자 이은수 목사가 함께 한다.

▶ 은혜한인교회 부흥회 10/3-6(목-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10월 3일-6일(목-일) 4일 동안 추계부흥성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부산포도원교회의 김문훈 목사, 주제는 복음의 전달자’(마 28:16-20)이다.

▶ 밀알 장애인 장학생 모집 12/6까지
남가주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을 돕기 위해 2024년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www.milalsca.org)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사랑 장학회 모집
제18기 사랑장학회 (KDSF)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화)-31일(목)이며, 사랑장학회 홈페이지(www.kdsfsarang.com)를 통해서 지원하면 된다.

▶ 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24년 밀알의밤
2024년 밀알의밤이 10월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위로 (이사야 40:1)’란 주제로, 심어송 라이터 ‘하림’을 메인게스트로 초청해 진행된다.
10/4(금) 오후 7:30 | ANC온누리교회 10/5(토) 오후 6:00 | 감사한인교회 10/6(주일) 오후 6:00 | 열방인 온누리교회
티켓 구입: \$20. 행사 당일 공연하는 교회에서 직접 구매 가능.
문의: 562-229-0001, milalsca.org

사설

전격 공개된 로잔 '서울선언문'의 윤곽

지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된 제 4차 로잔대회의 공식 문서인 '서울선언문'이 전격 공개됐다. 선언문이 미리 공개된 것에 대해 주최 측은 지난 23일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성경의 무오성'과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 로잔 측의 확고한 입장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문을 시작으로 총 7개 항의 본문과 결론으로 구성된 '서울선언문'에서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본문 두 번째 항인 '성경'이다. 선언문은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구성된 신적 영감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기록물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한다"며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므로 교회의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오류가 없다"고 했다.

이 문제는 로잔대회 초기부터 정체성과 관련된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지난 3차 대회 이후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견이 노출됐다. 이를 우려해 국내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대회 직전에 모여 "성경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던 것이다. 이 내용이 선언문에 들어가는 건 복음주의 권 안에서 대립해 왔던 로잔의 '성경의 무오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공개된 선언문은 '성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다룬 '인간' 항에서 "우리는 섹슈얼리티(sexuality, 성적 지향성)에 대한 왜곡을 탄식한다. 우리는 개인이 우리의 창조성과 무관하게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물학적 성(sex)과 성별(gender)은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간 창조의 고유한 사실로서, 문화권에서 남성성과 여성을 구분할 때 표현하는 사실"이라며 "또한, 우리는 성별 유동성(gender fluidity, 상황과 경험에 따라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유동적이라는 주장)이라는 개념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동성 파트너십을 성경적으로 유효한 결혼으로 정의하려는 교회 내 모든 시도를 애용해 한다"며 "일부 기독교 교단과 지역 교회가 문화의 요구에 굴복하여 그러한 관계를 결혼으로 성별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슬퍼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연합감리교회와 미국장로교, 서구 유럽의 여러 교회가 동성애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등 동성애를 옹호하는 풍조가 기독교 내에 확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완곡한 거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선언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동성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부분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했

다. 이는 그간 로잔이 동성애 확산에 침묵해 왔다는 비판에 대해 성경에 입각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차별을 지적하고 잘못을 인정할 것도 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동성 간의 매력을 경험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매력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우리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지역 교회에서 도전에 직면하며,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성경이 죄로 규정한 동성애를 배격하되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기에 따라 차후에 논란이 될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무지와 편견을 지적한 부분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확대해 해석될 소지마저 있어 보인다. 최종 선언문에서는 한층 다듬어진 표현이 담겨야 할 것이다.

또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동성 간의 매력을 경험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매력이라는 것을 인지한다"고 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문맥으로 볼 때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고 관용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론 배격 일변도의 반동성애에 활동에 대한 일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통상적으로 '선언문'은 대회 폐막 직전에 발표되는 게 관례다. 대회 기간 중 다뤄진 의제를 한데 모아 종합적인 결론을 내 그 대회의 방향성과 성격과 성과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두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개막 당일 로잔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서울선언문'이 지난 23일 갑자기 비공개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홈페이지에 '선언문'이 미리 공개된 것에 대해 "직원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대회 마지막 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회 초반에 '선언문'이 노출됨으로써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회 개막 첫날에 공개된 '선언문'이 최종본은 아니더라도 담길 내용의 윤곽이 드러남으로써 인천 로잔대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줬다. 골격이 크게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다.

복음주의 권 안에서 논란이 됐던 '성경의 무오성'과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내용이 '서울선언문'에 담기다면 이번 로잔대회에 출렁던 일각의 걱정이 가우였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WCC의 '통전적' 선교와 빼놓아 비판을 받았던 '총체적' 선교와 국가가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점이다. 대회 기간 중 이런 문제에 대해 토의가 충분히 이뤄져 제4차 로잔대회를 계기로 그간의 오해를 불식하고 복음 확장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진유철 칼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에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나오기 힘든 감옥에 들어가는 결코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끝내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50:20)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고통의 일조차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섭리의 안목에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선을 이루며 승리하려면 요셉처럼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12월, 연합군은 독일의 솜통을 끊고자 힘을 모아 '가운데 토막작전(The Battle of Bulge)'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심한 폭우가 내리는 밤에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군이 몇대의 지프에 나눠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연합군이 세워놓은 방향표시판들을 아무렇게나 바꾸어 놓음으로 이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연합군의 각 부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전체 작전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16장의 베드로입니다. 처음에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만류하자 오히려 질책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16:23)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기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열일곱 살부터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동네 유지의 철없는 아들로 살다가 애굽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선교사명으로 제8차 페루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맛집이나 관광지를 찾는 여행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식사와 잠자리와 벽찬 일정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될 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믿음의 도구가 되는 장학금이 되도록 배려와 양보, 섬김과 희생이 증거 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문제나 고통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 커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의 삶을 해석하는 참된 믿음과 승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롬!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THEOLOGICAL SEMINAR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마곡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edu. 주소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CSI, SACS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112/admin.korea@itsla.edu



잘 계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식사는 잘 드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인사를 전합니다.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 뇌치유상담

임사체험, 뇌의 착각이냐? 의식설이냐?



손 매 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모든 종교는 영혼과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는다. 임사체험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사후세계를 보고 온 것으로, 종교나 과학은 영혼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노력해 왔다.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유체이탈, 즉 자신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었다고 증언한다.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있고, 불교에서는 열반이 있고, 도교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날들을 다시 살게 되며, 힌두교에서는 순서대로 올라가다가 열반에 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종교가 약속한 듯 사후세계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중간역이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

한다. 1960년대 이후에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학계에 보고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되었다.

임사체험은 뇌가 만들어 내는 착각이다. 임사체험은 영혼이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 낸 착각이라는 설이 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임종 직전에 가까운 환자 11명의 뇌 활동을 측정하였는데, 죽기 전 30초에서 3분 사이에 뇌에 산소가 줄어들면서 전기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분출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임상적인 죽음이란 3가지의 기준이 충족될 때를 말한다. 즉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멎고, 뇌간이 기능을 하지 않는 때이다. 이런 현상은 신체 어느 곳에든지 혈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미국 뉴욕의 스토니브룩대학병원의 응급의학 교수인 샘 파니아에 따르면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가 기계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 중 1퍼센트 정도가 임사체험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심장 박동이 정지된 경우가 1,000건이라면 그중 100명 정도가 다시 살아나고, 그 100명 중 1~2명이 임사체험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환자 중 어떤 환자는 자신의 영혼이 공중으로 돌실 때 올라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의사를 쳐다보았다던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이야기했다.

연구팀이 말하길 임사체험은 죽어가는 뇌에서 마지막으로 전기활동이 폭발처럼 한꺼번에 일어나 발생하는 현상으로, 죽기 직전 뇌는 전기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임사체험 환자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1975년 레이먼드 무디가 임사체험에 관한 '삶 이후의 삶'을 출간했을 무렵에 많은 과학자들이 임사체험은 뇌가 만들어 낸 착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든가 이산화탄소 레벨의 변화, 약물 등 다양한 이론이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이론들 중 어느 것도 옳다는 증거는 없다.

임사체험은 영혼, 즉 육체에서 분리된 의식이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뇌 과학의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하버드 대학 메디컬스쿨 교수인 이븐 알렉산더는 7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자신의 임사체험을 통해 뇌는 멈추

었으나 의식은 살아있었다는 의식설을 주장하였다. 즉 의식이 임사체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현대과학은 뇌가 의식을 만들지만 대체 뇌세포가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내지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론인데, 뇌 속에 있는 솔방울샘(송과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영혼이나 의식은 육체와 따로 존재하며, 뇌는 그 중개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20년 동안 인간의 뇌와 의식에 관해 한 가지 혁명적이라 할 만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의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신, 생각, 마음, 영혼이다. 뇌가 의식을 만든다는 학설에 응급의학과 의사인 샘 파니아는 의문을 제시한 것이다. 뇌세포가 의식을 만드는 것이라면 뇌가 멈춰있는 동안에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임상적 죽음의 기간을 넘어서는 환자들, 즉 뇌가 전혀 기능하지 않는 환자에게 의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현대과학이 안고 있는 큰 난제는 '의식의 미스터리'라고 하였다.

■ 신성육 칼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신 성 육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간결한 문장을 하나를 발견했다. "함께 붙잡고 있는 인연의 끈이 풀렸는데, 나만 놓으면 사라질 줄이었다." /가린

이렇게 되어 있었다. '가린'이 가수 이름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글이 나오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짝사랑'을 뜻하는 것이라. 사업하는 일에 있어서 협력자나 동반자였다면 '혼자 착각했음'을 뜻하는 것이라.

그렇다. 살다 보면 배신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그게 상처가 되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케이스는 상대방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오해하거나 착각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데,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것으로 믿었다가 겉치레만 배신감에 쓰러진 상처를 얻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나를 좋아한 적

이 없다. 그럼에도 내가 그를 좋아했듯이 그도 나를 좋아하고 있으리라고 착각한 것이다. 그러기에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과 다툼과 비극들이 참 많다. 그런 경우는 나머지 인연의 끈을 놓으면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고 만다. 그렇다. 남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데, 혼자 상대방을 좋아하고 관심 가지려는 이는 많지 않다. 상대방의 뜻을 파악한 순간 나 역시 인연의 끈을 놓아버린다.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사랑의 관계는 이해타산에서 비롯된 것이 많기에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나는 '무한 행복자'이다. 나를 붙잡고 영원히 놓지 않는 질긴 인연의 끈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내 신뢰가 부족하거나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내 손목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은 결코 나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내 인연의 끈은 견고하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음을 본다. 그게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하지도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영원을 보장해놓으셨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

해 이 땅에 태어난 이들은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지옥에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천국 보내기로 예정하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의 부족과 허물과 죄로 인해 지옥 백성으로 떨어지는 걸 막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139:16)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렘 1:5a)라는 구절들이 보이는가?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하기 오래전부터 천국 백성으로 성별되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을 어찌 무시할 수 있으랴?

만일 내 허물과 믿음 부족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던지 저 두 구절에 기록된 내용은 거짓이란 말인가? 어차피 내 힘과 내 선행과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분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인연의 끈을 인간 쪽에서 놓는 경우마저 있다. 연인이나 부부관계처럼 한쪽만 끈을 놓아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관계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한순간 하나님이 잡

은 손을 놓을 수가 있어도, 우리의 손목을 굳게 잡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어야 하고, 그게 맞다고 말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가봐야 우리의 구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칭의 유보론'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전혀 아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에게 '보라 앞으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미래에 새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법정적 선언'이란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비록 아직은 의인이라는 법적인 신분은 맞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의인'이라는 '법적인 신분'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한쪽이 손절함으로써 신뢰했던 친밀한 관계가 깨지기도 한다. 두 사람이 인연이 되어 결혼한 부부였더라도 한쪽이 손을 놓으면 다른 쪽도 손을 놓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인연의 끈은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고 살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KISEIDO EYE NOON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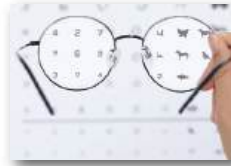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213.384.3333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팔복

산상수훈 팔복, 개별적 아닌 통합적 · 총체적 축복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을 받기 원한다. 스스로 힘써 행복을 쟁취하려 애쓰면서도,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운과 축복을 초자연적 존재, 그것이 신이든 나무든 돌이든 흑사라도 복을 가져다줄 능력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구하고 빌고 얻어내기 위해 뉘드지 한다.

그런데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직접 복 있다고 말씀하신 자들의 정체는 우리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누구도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분께서 직접 이런 자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배부르게 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마 5:3-12).

사람이 구하는 복은 지나치게 이생에 국한된다. 물론 이생에서 복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내세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만일 이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전부라면, 소위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기구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복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 복은 이생뿐 아니라 내생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모든 복이 새롭게 맺어진 관계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 아버지의 위로와 공급을 받고 아버지와 친밀한 앎을 누리며 아버지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복은 복을 주는 사람과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분을 알고 믿고 사귀고 누리는 사람이 '팔복'에서 말하

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다. 그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바르게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관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다시 말해 팔복은 지극히 복음적이다.

강민구 목사가 쓴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은 바로 그 팔복의 핵심을 제대로 다룬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록은 좁고 협착한 복음의 길로 독자를 부르는 가장 직접적인 호소가 담겨 있다. 강민구 목사는 재즈 색소폰을 전공하고 버클리 음대에 들어가 실력을 키워가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마스터스 신학대학원에서 복음주의 강해 설교자 존 맥아더 목사 및 교수들의 양육 아래 목회자로 거듭났다.

그는 팔복이 포함된 산상수훈의 두 가지 목적을 이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향한 인격과 삶을 갖춘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를 자신의 무능력에서 돌이켜 왕이신 주께 굴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르게 말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초대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 말한다. 또 강민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여덟 가지 개별적인 복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복이라는 것을 밝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죄로 인해 무능력한 자신을 보며 애통할 줄 아는 자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그분의 온유하심을 닮아 평안을 끼친다.

결국 팔복을 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그들은 모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고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하면서도(그래서 '아직' 온전히 주어지지 않은 것이면서도) 충분히 현재도 누릴 수 있다(그래서 '이미' 주어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맛보고 후에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요컨대 천국은 장차 도래할 분향이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축복이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예수 안에서 긍휼과 위로와 공급을 받는다.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박해와 모욕을 참아내야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공급과 돌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에서 강민구 목사는 팔복을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 기반한 복음 중심적인 메시지로 풀어낸다.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 종교적 열심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 은혜받은 자를 강권하는 사랑의 순종. 저자의 말처럼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팔복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덴마크 화가 카를 하인리히 블로흐(Carl Heinrich Bloch, 1834-1890)의 '산상수훈(The Sermon On the Mount, 1877)'.

바르게 알고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강민구 목사의 책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인 분과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삶을 더 명료하게 보여주고, 다른 헛된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그런 유익을 얻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강민구 | 세우미 | 200쪽 | 12,000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을 강제한 책이다. 자칫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은 복에 대해 정의하기를 '영적인 복이자 내적인 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복'으로 정의를 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품의 변화는 반드시 관계의 변화와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곧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은,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인격에 걸맞은 삶의 변화와 미래 보상까지도 포함합니다."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14

And over all these virtues put on love, which binds them all together in perfect unity
COLOSSIANS 3:14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숨쉬며 살았다는 것,
그 노동하고 한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사면: 귀신전) (3)

무속의 '점'과 기독교의 '예언', 공통점과 차이점



귀신에게 고통받는 이들과 무당들의 체험담을 사실대로 담아낸 다큐멘터리, <사면: 귀신전>. ©티빙

**무속, 역사 유구한 민족 전통종교
관상·풍수와 무속과 기원 다르나
길흉화복 점치는 속성 공유하다
시간 지나면서 같은 부류 인식돼**

**무속과 점: 앞날의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한
세 종교문화, 풍수와 관상과 무속**

무속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무속의 긴 역사가 그 사회적·영적 유익함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계몽이 덜 진행된 사회에는 항상 유구한 전통을 가진 인습이나 약속이 곳곳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최근 여러 무속인들의 사기와 갈취 행태는 무속이 영화나 드라마에 묘사된 것처럼 그저 신비롭고 영험한 풍습이자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근자에 무속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인식 변화가 일어난 데는 대중문화와 모바일 미디어 역할이 크다. 무속인이라는 소재를 중점적으로 다룬 영화 <곡성>이나 무속에서 존송하는 신령을 중심 소재로 삼은 드라마 <도깨비> 외에도 <관상>, <풍수>, <파묘> 같은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며 무속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크게 개선시켰다.

엄밀히 말해 관상이나 풍수는 무속과 근친성은 있지만 그 문화적·사상적 기원이 다르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풍수와 관상은 무속과 구별되는 종교적 영역으로 인식됐다. 조선 건국 시기 도읍을 결정하는 사안을 두고 각자의 풍수 이론을 가지고 대립했던 정도전과 무학대사의 사례,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여러 관상쟁이들의 활약상이 이를 증명한다. 정도전은 성리학을 최고의 가치로 받들었던 인물이고, 무학대사는 이름난 승려였다. 태조 이성계의 관상을 본

것으로 유명한 관상가 혜징도 승려였고, 정도전의 동문이자 태종 이방원의 책사로 정승 벼슬까지 지냈던 유학자 하륜 또한 유명한 관상가였다. 구한말 흥선대원군의 최측근 가운데는 조선 최고 관상가로 이름난 박유봉이 있었다.

만일 풍수와 관상이 무속의 지류로 여겨졌다면 정도전이나 무학대사, 혜징이나 하륜이 풍수지리나 관상 이론을 설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조선의 여러 군왕이나 권세자들이 관상가들을 총애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관상과 풍수가 무속의 지류로 편입되거나 무속과 결을 같이하는 주술로 인식되게 된 듯하다. 이는 무속, 풍수, 관상 모두가 앞날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주술로서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올해 초 천만 관객을 달성하며 크게 흥행했던 영화 <파묘>를 보면 오늘날 무속이 세간에서 풍수와 동종의 종교문화로 여겨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무속인들이 점을 치면서 관상학 이론을 자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예능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결국 세간에 인식된 무속의 본질은 점술이다. 어떻게 해야 병마와 잡귀에게 시달리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는 인생컨설팅 및 솔루션 서비스 제공이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무속인들의 주된 역할이다.

**예언과 점: 기독교적 예언의 본의(本意)를
왜곡하는 무속의 점술 문화**

간혹 교회에서도 개인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신앙과 순종의 방향 자체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교회는 개인에 대한 예언보다는 말씀의 지식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점술에 특화된 무속의 문화적 확산은 예

언에 관한 교회 내부의 질서잡힌 지식을 희석 또는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대중문화 속 무속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보다 훨씬 신비롭고, 영험하고, 친숙하게 미화된 무속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 대중을 넘어 교회 내부에까지 경건하지 못한 이교적 풍습을 전파하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널리 퍼진 종교적 속설 가운데 유명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천기누설' 위험성에 대한 속설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 혹은 한 나라의 앞날에 대해 점치는 일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믿음이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 특히 그 점술 내용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 이를 밝히는 데 대한 대가가 더욱 커진다. 대개 미래를 점친 자의 목숨이 희생되거나 그 후손이 불운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속설은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통용된다. 그래서 점을 치는 무속인들은 그들의 고객에게 마치 송고한 희생자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점을 치고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겉보기에는 막강한 카리스마와 큰 경제적 이익을 선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무속인들의 인생 전체를 그들이 떠받드는 신에게 바쳐야 하는 희생이 뒤따른다. 이는 실제로 점신을 통해 무속인이 된 이들의 공통적 경험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속을 소개하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속인들은 마치 송고한 희생을 감내하는 선한 종교인 것처럼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 양심적으로 영접하는 무속인들도 있지만, 자신이 가진 카리스마와 무속인들의 희생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무기삼아 고객들을 등쳐먹는 이들도 부지기수로 발견된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고등종교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불법행위 못지 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무속인 집단에서도 사이비 무당들이 악행을 저지른다.

사이비 무속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폐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가스라이팅을 통한 갈취, 폭행, 성폭행 등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힘든 사례들이 수도무다. 하지만 무속인들의 불법행위는 거의 다 사후 처벌에 그치고 만다. 이는 무속인과 그 고객의 관계가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개념 안에서 방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무속이 '종교'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질수록 더 빈번하고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무속인들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상

시적으로 고객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사이비 무속인들이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가 대폭 확장돼 있는 실정이다.

무속이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더 친숙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엮이게 되면서 발생할 부작용 가운데는 사이비 무당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점치는 일 즉 자의적 예언의 미혹에 넘어가는 교역자들이 생겨날 공간이 크다. 무속과 점치는 일에 대해 별 경계심 없는 신자들이 예언을 바라게 될 때 이를 이용하려는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의 활동 또한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성서의 예언은 개인의 앞날에 대해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민족·국가·인류 단위의 앞날을, 그것도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내용만을 전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애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신의 힘으로 앞날을 말하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든지 영적으로 유익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례로 복음주의적 성서해석을 중시했던 성서주석학자 프레드릭 브루스(F. F. Bruce)가 그의 저서 <사도행전 주석>에서 밝힌 것처럼, 바울 사도는 아폴로 신을 섬기며 점을 치던 여중(pythoress, 아폴로의 말을 듣는 여사제)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키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행 16:17)"라고 말했어도 그 내용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 말 내용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말의 주체가 점치는 자에게 접한 신이었기에 동조하거나 인정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심지어 바울은 성령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 아가보의 말(행 21:10-14)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브루스의 주석에 따르면, 아가보의 예언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의 죽음을 미리 아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복음을 위해 죽을 것임을 미리 알리는 내용이었다. 즉 바울에게 아가보의 예언은 죽음을 피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죽음에 앞서 지혜롭게 사역을 예비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사면들의 점술과 기독교의 예언 사이에 드러나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 준다. 사면들의 점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 주어지는 말이며, 주로 개인의 운명과 욕망에 결부돼 있다. 반면 기독교의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주어지며 교회, 민족, 나라, 그리고 인류의 앞날과 신앙에 관련돼 있다.

간혹 교회에서도 개인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의 신앙과 순종의 방향 자체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교회는 개인에 대한 예언보다는 말씀의 지식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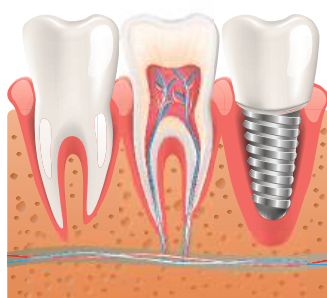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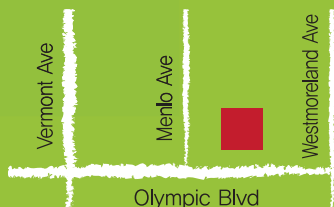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OLYMPIC DENTAL CENTER

Olympic Blvd

[통합] 세습방지법 유지하기로

예장 통합 제109회 총회 둘째 날인 25일 오후 회무에서는 이번 총회 최대 이슈로 꼽혔던 헌법 제28조 6항(일명 세습방지법) 삭제 안건이 다뤄졌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회무에서 헌법위원회는 제28조 6항의 삭제 여부에 대한 총대들의 의견을 구했다.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한 결과, 1,031표 중 찬성 370표, 반대 661표로 부결됐다.

앞서 헌법위원회는 제안 설명을 통해 “28조 6항은 법 개정 시부터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었고, 28조 6항 1·2호는 가결되고 3호는 부결돼 법 적용에도 논란이 있어 왔다”며 “또 재판관권을 권징에 의하지 않고 결의로 해임한 사실과, 법을 잠재한 수습안 결의 등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위원회는 101회기부터 일관되게 ‘목회자 세습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법

의 미비를 초래해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본 조에도 불구하고 교회 간 합병 및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해졌고,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교단 내에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치유하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삭제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총회석상에서도 서기 조행래 목사는 “교회에 결정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울레 표어처럼 도약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난상토론이 이어질지도 모르지만, 총대들의 생각을 여쭙보고 공론화를 하고자 안건을 제출했다”며 “오늘 결의해도 다음 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2/3가 찬성해야 하고, 노회 수의까지 하면 3년이 필요하다. 교회에 결정권을 주면 성도들이 잘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찬반 토

론에서도 “중대한 문제이고, 일부 교회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며, 단순 다수결로 하기도 힘든 문제”라는 삭제 반대 의견과, “대형교회만 대물림이 안 되고 작은 교회는 해도 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 현재 법은 기형적”이라는 삭제 찬성 의견이 맞섰다. 결국 의장인 김영걸 총회장이 “토론을 하면 끝이 없으니 표로 결정해 달라”고 정리한 후 표결에 돌입했다. 28조 6항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개정안은 1,046표 중 찬성 974표, 반대 73표로 통과됐다. 지교회 설립·폐지 시 세례교



개회예배. ©총회

인 수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안건과, 노회 폐회 중 위임목사뿐 아니라 부목사와 교육목사 청빙도 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 등이다.

이대웅 기자

[합동] 여성사역자 ‘처우 개선’ 은 통과, ‘강도권 부여’ 는 정치부로



예장 합동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위원장 류명렬 목사가 25일 오전 회무에서 보고하고 있다. ©기독신문 CTV 유튜브 캡처

예장 합동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여성사역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사역자특별위

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달라는 청원이 통과됐다. 하지만 가장 핵심 사항인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와 관련한 헌법 개정안은 정치부로 넘겼다.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여성사역TFT)는 25일 회무에서 ▲여성사역자 처우 개선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 전환 세 가지 건을 청원했다.

먼저 “여성사역자들이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교단의 부흥 성장에 함께 헌신하도록 존경과 예우에서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는 청원은 가부를 묻은 끝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됐다. 하지만 두 번째 청원인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헌의는 노회만 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여성사역TFT 위원장 류명렬 목사는 “총회 규칙 28조 2항에 따르면 노회는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 그러나 중부노회에서 헌법 개정을 청원했기에 절차상 문제는 종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몇 총대들의 의견에 따라 해당 건은 정치부 안과 병합하기로 했다.

여성사역TFT가 청원한 헌법개정 내용은 사역자들을 “강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강도사”와 “인허 후 노회의 지도 아래 1년 이상의 수양 후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는 남강도사”로 구분 및 재정의하는 것이다. 합동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여성 강도사 인허’를 가결했다가, 그것이 ‘여성 목사 안수’로 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이틀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정치부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해당 청원이 통과된다 해도 갈 길은 멀다.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이번 총회에서 15명의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제110회 정기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돼야 한다. 이후 각 노회 수의를 거쳐 노회수 과반과 총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제111회 총회에서 개정이 확정된다.

송경호 기자

[기장] 양성평등위, 설문 성별란에 ‘남·여·기타’?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9회 총회가 24일 오후 개막한 가운데, 기장 소속 목회자들이 결정한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가 총회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창환 위원장은 “이00 교수가 9월 1일자로 한신대 교목실장에 임명됐다고 한다. 쿼어신학을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치고, 쿼어성서주석 번역에까지 참여한 교수를 교목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했다.

또 “지난 6월 1일 서울 을지로임구역 인근에서 강행한 쿼어축제에 참여한 30여 명의 ‘무지개 예수’ 목회자들에 대해 예장 통합 총

회와 감리회에서는 치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기장 총회는 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기장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장 여성 인권 실태조사’ 중 1번에서 성별을 묻으며 항목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기타’를 집어넣었다. 전례 없는 이 항목을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뿐만 아니라 한신대 신대원 드래그퀸 공연, 평화문화 약속문, 쿼어문화축제 10년 방해사 다규 상영 등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교회는 동성애·동성혼을 결사 반대하는데, 기장 총회는 이러한 일

들 때문에 동성애·동성혼 지지 교단으로 일방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그런 행위는 기장의 ‘민주, 통일, 평화, 생명운동’이라는 좋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9월 17일 현재 ‘동성애·동성혼 반대 서명’에 목사 307명, 장로 817명 등 1,124명이 참여했다는 대책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개혁’을 위해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분명히 할 총무 후보자를 선출할 것 △쿼어신학을 가르치거나 옹호·지지하는 이들을 한신대와 신대원에서 퇴출시킬 것 △109회 총회에서 ‘동성애·동성혼’ 문제에 대해 기장 헌법에 근거한

교리와 신조와 신앙고백서에 반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되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할 것 △쿼어성서주석을 번역할 정도로 동성애와 쿼어신학을 지지하는 이00 교수의 한신대 교목실장 임명을 철회할 것 등을 결의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목회자 성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실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김창환 목사는 “이 서약서는 기장 총회 내 목사와 장로들을 ‘잠재적 성폭력자’로 규정하고 있어, 심각한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부목사 청빙

시카고 교외에 위치한 헤브론교회(www.hebron.org)에서 Full-time 부목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 사역영역**
장년사역 목회자 1명(심방, 설교, 교육)
- 자격요건**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정규신학대학원 졸업자(목회학석사)
 - 미국거주 및 사역이 법적으로 가능한 목회자(취업비자 제공 가능)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1부 (가족소개, 성장배경, 신앙고백 및 소명, 은사 및 관심분야)
 - 최근 1년 이내 설교 영상(1편): 유튜브 링크
 - 추천서: 2부(이전교회 담임목사 포함, 추천인의 이름과 연락처 포함)
 - 신학대학원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 미국거주 및 합법적 사역을 입증하는 서류
- 제출서류 마감일: 2024년 10월 27일**(또는 적임자를 모실 경우 마감)
 -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Taehankim@hebron.org)
 - 문의: 김태한 목사 (630-935-7552, Taehan.kim@my.wheaton.edu)
 -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헤브론교회

제5차 글로벌복음통일미션 컨퍼런스 Global Reunification Korean Mission Conference



세부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
www.tmtc.co.kr

주제 “디아스포라 복음통일연합방안”
“다음세대와 복음통일방안모색”



기간 _ 2024. 10월 29일 ~ 11월 1일
장소 _ **방콕한인연합교회**(신상태 담임목사)
63, SOI 44, PHATTANAKARN RD;
SUANLUANG, BKK 10250
(숙박장소_THAYA HOTEL BANGKOK)
대상 _ 담임목사 / 북한선교담당자 / 위 주제 관심자 모두
참가비 _ \$250(30만원)/1인

* 추가음선일정(11월 1일~3일, 탈북루트 치앙라이 외 1곳) _ 등록사이트 참조



주최 | 글로벌복음통일미션네트워크

주관 | TMTC | Total Mission Training Center
(사)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기드온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협력 | 방콕한인연합교회

협찬 | BELL INTERNATIONAL ACADEMY

기독교일보

문의 | 대회본부 (425)775-7477 | 개최교회 (093)139-6520 | 기타 (82)10-9294-3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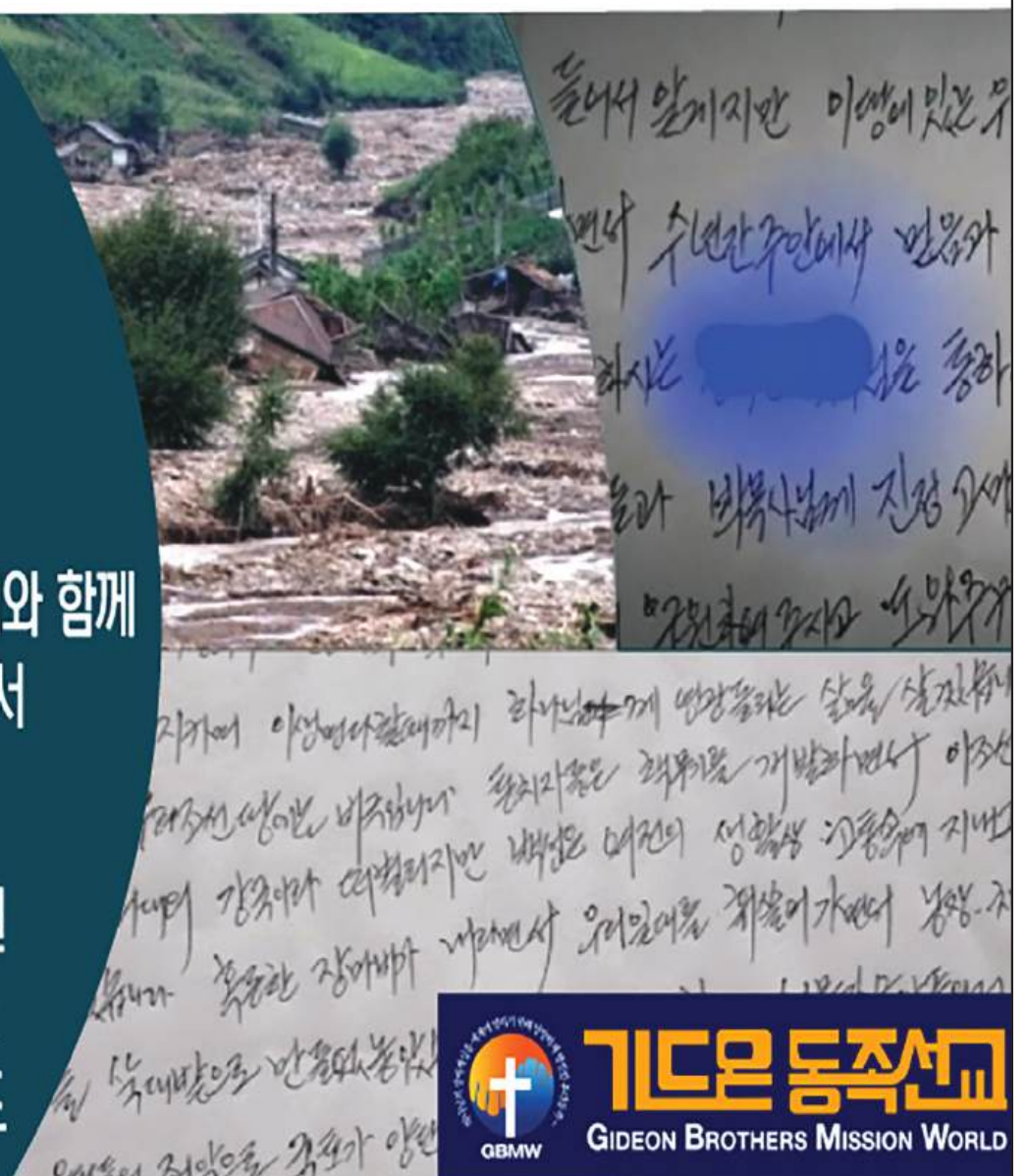
홍수로 고통중인 북녘지하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지난 5월 춘궁기 양식을 잘 받았다는 감사편지와 함께
최근 큰 홍수로 농장, 채소밭이 쓸대밭이 되어서
큰 고통중에 도움 요청편지...8월9일

모든 후원헌금은 연말세금
공제의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메모: '홍수돕기' 기입)



후원
QR
코드



기드온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후원방법: PayPal - swp2019 , Venmo - won06danny , Zelle - 4252758072 , 체크오더명: GBMW(아래주소로)

기드온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Tel. 425.775.7477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